

용구 수단 넘어 생사에 대한 정신세계 엿보여

[문화유산 재발견22-민속문화재 6호 상여] 뱀 형상화한 목조각 등 눈길

데스크승인 2014.07.31 김현종 기자 | tazan@jejunews.com



사람이 죽어 초상을 치를 때 시신을 묘소까지 운반하는 용구인 상여(喪輿).

인간이 삶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타는 상여는 생과 사를 바라보던 옛사람들의 정신세계가 깃든 물건이다. 상여에 종이로 된 수많은 꽃을 매단 것이 바로 꽃상여다. 상여는 대개 12명 내외의 남성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했다.

그런데 제주지역에서는 장례 행렬에서 상여보다 한 발 앞서 여성들이 상여와 연결된 긴 무명이나 광목 줄을 잡고 걸어가는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의식이 행해졌다.

장례 행렬에서 명정이 맨 앞에 서면 망자의 사진이 뒤를 따랐다. 명정은 빨간 바탕에 하얀 글씨로 쓴 장례를 알리는 문서이고, 사진은 만약 없을 경우 적삼 등 옷가지로 대체했다.

이어 망자의 영혼을 모신 혼백상이 자리했고, 그 다음으로 여성들이 상여와 연결된 무명·광목 줄을 잡고 걸으며 망자가 사후세계로 가는 길을 인도했던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제1 민속전시실 '제례' 코너에 전시된 상여 1기는 1991년 6월 제주도 민속문화재 제6호로 지정됐다.

이 상여가 제작된 배경과 동기, 사용 내력 등은 '건륭 28년 책록'에 상세히 기록돼 있다.

이 책록에 따르면 상여는 1763년(영조 39) 서귀포시 신호·하효마을 주민들이 함께 마련했다. 당시 이들 마을이 속했던 남원면(面)에는 상여가 달랑 한 대 밖에 없어 주민들 간에 구차한 일이 자주 벌어졌다. 면 회의에서 상여 하나를 더 만들자는 결의가 나온 이유다.

그런데 막상 상여가 만들어진 후 다른 마을들은 상여 제작비를 내지 않았고 결국 신호와 하효 주민들만 돈을 지불해 상여를 사들였다. 구입비용은 두 마을의 주민들이 한 사람당 포목(무명) 16자와 좁쌀 5되 8홉씩 모아 마련한 것이다.

이 상여는 조각과 단청이 빼어나고 간략하면서도 화려한 색채가 눈에 띈다.

특히 네 귀퉁이에 해와 달, 용과 봉황 등의 이미지를 소박하게 표현한 목조각 장식과 그림은 제 주인의 죽음에 대한 시선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다.

상여 몸체는 빨강과 노랑, 파랑, 검정, 하양 등 오방색 천으로 포장돼 있고 쇠붙이 장식들도 붙어 있다. 상여 지붕부분에 민화풍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최상부에는 뱀이 형상화돼 있다.

김영란 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는 '건륭 28년 책록'과 관련해 "아쉽게도 박물관에 소장돼 있지 않고 소재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1985년 5월 신호주민들이 상여를 박물관에 기증할 때 책록은 빠져있던 것으로 미뤄 당시 마을에 남아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김 학예연구사는 "상여가 제작된 후 오방색 비단옷감으로 제작된 휘장부분은 습기로 인해 빨리 훼손되면서 자주 수리되고 교체됐다"며 "휘장이 마지막으로 수리된 것은 1947년으로 당시로선 최고급 옷감과 금속 장식이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news.com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